

구 본 형 변 화 경 영 연 구 소

Change 2010

월간매거진

2010년 03월 창간준비호



Change 2010은 2010년 4월 25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먹고 살 수는 없을까?

올해부터 베이비 붐 세대가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론 청년 백수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와 청년 백수 사회에서 1인 기업가 시대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되어 저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기업들도, 그 누구도 이 시기를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에 저희 변화경영 연구소에서는 1인 창조 기업가로서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는 <필살기-사자-호랑이 프로젝트>라는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1인 기업가로서 생존할 수 있는 ‘필살기’를 만들고, 때로는 ‘사자들처럼’ 나와 기질과 재능이 비슷한 이들을 찾아 ‘무리’를 이루어 힘을 합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한 마리 ‘호랑이’로 도도히 걸어갈 수 있다면, 다가오는 미래가 더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 생활이 아니라면, 내가 만들어가는 나만의 1인 창조 기업이라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먹고 살 수는 없을까요?

저희 <Change 2010>은 2010년 4월 25일부터 <필살기-사자-호랑이 프로젝트>의 생생한 실험 사례를 싣고 여러분 곁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 함께 참여하며, 1인 기업 시대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먹고 사는 멋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Change 2010>이 함께 하겠습니다.

구본형의 변화사상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모델이자 변화경영 사상가인 구본형 소장이 들려주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들

직장인을 위한 필살기 창조 프로젝트 | 홍승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는 1인 기업가 시대. 과연 난 그 시대를 살아갈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을까? 내 안의 것을 갈고 닦아 나만의 필살기를 만드는 비법

[사자 프로젝트] 창조적 소수의 무리를 이루는 법 | 수희향

기질과 재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깊이 사귀어 멀리 가는 창조적 소수”를 이룬다면, 세상 그 어떤 비바람과도 맞설 수 있지 않을까?

1인 기업가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좋은 사자의 무리”를 이룰 수 있는 관계 이야기

[호랑이 프로젝트] 1인 기업가로 홀로서기

필살기가 미흡한 신세대 호랑이들의 생존 전략 | 이희석

조직 생활이 체질에 맞지 않는 젊은 호랑이시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조직 생활을 거치지 않고도 홀로도도히 1인 기업가의 삶을 개척해 가고 있는 선배 호랑이의 신세대 호랑이 생존법

필살기를 갖춘 호랑이들의 마케팅 전략 | 이건호

필살기를 갖추었는데 아직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셨다고요? 필살기를 갖추고도 홀로서기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나를 세상에 알리는 마케팅 전략

[인문학 놀이터]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인문학 놀이 공간

루린 이야기 | 김도윤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날 때,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걸까?

내면 탐험으로의 초대 | 홍승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여행이 필요하다. 이 여행은 모험이다.

시 읽어주는 여자 | 이은미

시는... 포기를 몰랐던, 꿈으로 가득했던 ‘무의식의 나’를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되었습니다.

구본형의 변화사상

나에게 변화란 무엇인가?

| 구 본 형

인생은 무엇으로 남는가? 나에게 그것은 빛나는 환한 순간들로 남는다. 나는 그 순간을 '삶의 슬픔에 온 몸으로 헌신한 기쁨' 이라고 표현한다. 시간과 공간의 좌표 속에 등장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단명한다. 단명한 존재의 슬픔, 우리는 순간적인 존재이기에 타오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변화를 하려면 다니던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나를 만나면 정말 묻고 싶은 말이었다 한다. 아니다. 물론 아니다. 나에게 변화란 늘 명료하다.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 appearance 에서 실존하는 실재 reality로 전환**하는 것이다. 언제 그럴 수 있을까? 언제 나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카를 구스타프 융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진정한 존재에 대한 매우 훌륭한 정의를 얻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때, 온전히 내 자신을 던져 철저히 참여할 때', 그 때 우리는 참으로

존재한다. 조셉 캠벨은 시처럼 말한다. '삶의 슬픔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우주적 떨림에 공명한다. 이때 단명한 존재의 영혼이 우주적 영원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다. **빛나는 환한 순간들로 지금의 단명함을 채울 수 있다면 변화에 성공한 것이다.**

회사에 다니던 그렇지 않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흘러간다. 부모의 권유를 따라가고, 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시대가 만든 통념에 젖어 흘러간다. 문득 그것이 표류이고, 그 속에 내 삶은 없고,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뒤섞인 세상에서 벗어나 내 삶을 찾고 싶을 때, 힘껏 헤엄쳐 다른 계류를 찾아 떠나가라는 것이다. 표류하지 않고 헤엄을 치니 내 양 어깨는 튼튼해 질 것이고, 순간 순간 갈 곳을 스스로 정해 길을 터야하니, 내 머리는 나침반처럼 깨어 있고 명징할 것이다. 모험 속에서 겪었던 경험들은 빛나는 기억으로 가슴에 쌓여, 우리는 시인처럼 치열하게 참여한 삶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에 있던 우리는 '살아있음의 떨림'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변화 속에 있는 것이다. 변화란 결코 완성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완성되는 순간 변화는 멈추게 될 것이고, 멈춘 것은 죽은 것인데, 죽은 것은 위대한 완성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직장인을 위한 필살기 창조 프로젝트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살 수 있을까?

| 홍 승 완

이 칼럼의 목표는 단순하다. 직장인들이 매일 회사에서 하고 있는 직무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차별적 전문성인 필살기를 창조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특기가 없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결핍이다. 평범함을 벗어나는 길은 여러 일에서 월등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한 가지에서 탁월해지는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한 가지 분야에는 통달할 수 있다.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평범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딱 막힌다. 잘 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좋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평범함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이 인식이 가장 결정적인 출발점이다.

‘잘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을 통해 계발된다. 첫 번째 요소는 **재능**이다. 한 분야에 쓸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은총 받은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능의 크기가 아니다. 성공의 요체는 재능의 크기라기보다는 받은 재능만큼이라도 다 쓰고 가는 것에 있다. 많은 재능을 받았지만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받은 만큼이라도 다 쓰고 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 따라서 동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스스로 아껴줘야한다. 무엇이든 좋다. 발굴하라. 두 번째 요소는 발굴된 바로 그 괜찮아 보이는 **재능 하나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그 일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노심초사하지 않는 것이다.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에 모든 투자가 가능한 자원을 결집시킴으로써 그 재능을 숙성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작동시킬 수 있는 강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관심과 돈과 시간을 여기에 모두 집중시키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집중하라. 세 번째 요소는 이 숙성 과정을 **습관화**시켜 멀리 가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오래 동안 멀리가려면 습관의 힘을 빌려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도중에서 그만두게 되는데, 그것은 중간에서 뜻을 꺾는 것이다. 도처에 잠복한 장애를 넘어 ‘비범한 수준’에 이르려면 습관의 힘을 빌려 매일 수련해야 한다. 매일하라.

이 칼럼은 직장인을 위한 필살기 창조 모델을 단계별로 소개할 것이다. 독자가 필살기 창조 모델을 따라 각 단계마다 주어진 방법론에 맞추어 놀이에 직접 참여해 가다 보면 차별적 전문성에 이르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필살기 창조 놀이**’라고 부른다.

독자의 참여가 숙제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이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이들은 어디서든 노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렇다면 왜 어른들은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을 가지고 놀 수 없는 걸까. 이 놀이는 나를 바꾸어 재창조하는 놀이, 숙제처럼 해오던 현재의 직무를 놀이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전략 놀이,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보는 실천 놀이이다. 이 칼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숙제와 과제를 창조적 놀이로 인식하는 정신적 전환이다. 이 칼럼을 보는 동안 다음 질문을 늘 가슴에 품자. 그리고 도전하자.

“왜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살 수 없단 말인가?”



필살기 창조 모델은 직장인들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일을 버리지 않고, 재조합하고 재창조하여 차별적 전문 직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필살기는 특별히 나만이 가장 잘해 낼 수 있는 ‘차별적 전문성’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슷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필살기는 독보적일 수록 제 값을 가진다. 누구도 복제 불가능한 것 일 때 빛난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가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살기의 창조는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능력을 활용해야한다.

필살기 창조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정과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직장인은 노동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선택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한다. 4명중 3명은 현재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 10명 중 1명만이 지금 맡은 일에 자기 능력 전부를 다 쏟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통계적 진상이다. 불만족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불만이야말로 개혁의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건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만족하고,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해 쓸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방법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첫째, 월급쟁이의 마인드 셋에서 비즈니스맨의 마인드 셋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의 직무를 ‘해야 할 숙제’로 보지 않고, ‘팔아야 할 비즈니스’로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비즈니스는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고, 전략의 핵심은 여러 비즈니스의 믹스(business mix)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을 발굴하여 집중투자 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장악하는 것이다. 강점경영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직무를 분해하고 자신이 가진 가장 강한 재능에 기초하

여 집중 투자할 전략적 테스크를 선택한다. 그리고 부족한 핵심 테스크를 보완하고 변용하여 차별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전략을 검박한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갈 곳이 정해지면 달리면 된다. 달리는 사람에게는 지루함이 없다. 새로운 습관이 실천을 자동화하고,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부여한 규율이 행동의 고삐를 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되어 빵이 익듯이 1만 시간이 지나면 필살기가 구워진다.

지금은 차이를 만들어 낼 때다. 평범한 직장인의 임계치를 넘어서야할 시기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 도달한 통달의 경지에 이르려면 ‘나는 이 일로 유명해질 것이다.’라는 뜻을 먼저 세워야 한다. 뜻을 세우고 나면 방법은 따라온다. 직장 내에서 필살기를 수련할 때는 현재의 업무를 멀리 떠나서는 안 된다. 현재의 업무를 잘 활용하지 않고서는 매일 연습하고 수련할 공간도 과제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승부를 걸만한 전략적 테스크들을 찾아내 ‘그 일로 유명해 질 것’이라 뜻을 세우고, ‘어느 누구도 너처럼 그렇게 잘할 수 없다’는 평을 들을 때 까지 탁월함으로 치솟아 올라야 한다.

‘직장인의 필살기’, 여기에는 밥과 직결된 절박한 무엇이 있다. 우주의 무엇인가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공양하는 것, 그것이 밥이다. 세 끼의 밥상 위에 놓인 여러 주검들, 식탁에서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죽어 준 식물들과 동물들에 대한 의식이다. 삶은 다른 것들을 죽여 먹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기 위해 죽어 준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세끼의 밥을 먹고도 하루를 그저 낭비한다면 직무유기다. 만일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 버렸다면 용서받지 못할 유죄다. 우주적 존재로서 받은 재능들을 다 활용하여 맡겨진 역할을 해내는 것, 결코 적당히 살지 않는 것, 나는 이것이 제대로 밥값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 칼럼은 2010년 3월 중순에 출간되는 구본형 소장의 저서 ‘구본형의 필살기’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나(홍승완 연구원)의 생각을 더할 것이다.

[사자 프로젝트]

창조적 소수의 무리를 이루는 법

| 수희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정년 퇴직이 시작된다고 한다. 이제 1인 기업가 시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을 태세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1인 기업가의 정의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 말로는 흔히들 1인 기업가 시대가 도래했다 외치고 있지만, 과연 나 자신은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2009년 구본형의 변화경영 연구소(이하: 변경영)에서는 작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실험을 하고 있다. 이름하여 <필살기-사자-호랑이 프로젝트>

필살기 산에서 하산하려면 누구나 필살기 하나쯤은 갖추고 하산해야 함은 기본이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세상에 뛰어들면 불나방의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이치다. 필살기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사자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사자는 밀림의 제왕이지만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동물이다. 즉, 제 아무리 필살기를 갖춘 맹수의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끼리끼리 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다. 즉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 중 기질과 재능이 맞는 사람들끼리 “깊이 사귀어 멀리 가는 창조적 소수의 관계 형성”을 사자 프로젝트라 명명하고 있다.

물론 사자의 무리들을 이룬 창조적 소수들 중에서 시간이 흘러 그 역량을 더욱 키우고 명성을 얻어 호랑이로 홀로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동안 동지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 바로 <동료+친구+알파>의 **창조적 소수의 관계가 사자의 무리들**이다.

이에 이 칼럼에서는 지난 1월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만난 9명의 낯선 남녀들이 <카페 탐험대>라는 타이틀을 달고 6개월간 “카페를 차리기 위한 모든 탐험 과정”을 밀착 취재하려 한다.

카페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만, 리테일 쇼프 중에서 성공률이 가장 저조한 업종 중의 하나인 카페.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가운데 살아남는 카페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변경영의 카페 탐험대가 밝혀 낼 수 있을까?

과연 이 낯선 남녀들이 카페 탐험대의 여정을 마치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동업의 길로까지 들어설 수 있을까? 만약 누군가 카페를 오픈한다면, 진정 그 카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에 실패하지 않을까?

변화경영 연구소의 카페 탐험대.
그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너,

“**창조적 소수의 사자 무리들**” 이다.

[호랑이 프로젝트] 1인 기업가로 홀로서기

필살기가 미흡한 신세대 호랑이들의 생존 전략

| 이 희 석



2010년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사당동의 작은 교육장에 도착했다. 프리랜서 강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교육의 참가 인원은 24명. 참가자들은 20대 후반에서부터 50대까지 연령이 다양했고, 사내강사, 영업사원, 교사, 교직원 등 직업은 서로 달랐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들 프리랜서 강사로 독립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프리랜서 강사를 원하는 것일까? 프리랜서 강사되기를 돕는 이날 교육에는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까? 이런 궁금증으로 자리에 앉아 교육 시작을 기다렸다.

본 칼럼은 1인기업을 꿈꾸는 2030들을 위한 글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전문화, 고숙화되고 있다. 전문성의 원천은 조직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다. 개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지식과 서비스를 직접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1인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이다. 게다가 2009년 3월, 1인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었고, 올해는 1인기업 지원액을 2배로 늘렸다. 정부의 지원은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는 1인기업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1인기업에 대한 20~30대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미래를 정부의 지원만을 믿고 결정할 순 없다. 1인기업을 꿈꾸는 이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1인기업이 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갈고 닦아야 하

는 전문성은 무엇인가? 본 칼럼은 이런 질문들을 포함하여 젊은 2030들이 1인기업을 시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다룬다.

2007년 1월 8일은 필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맞이한 첫날이다. 집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오후 5시 무렵 회사에 나갔다. 필자를 위한 파송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무했던 회사는 한 직원이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마다 파송식을 해주었다.) 그날, 많은 분들이 파송식에 참석하여 이별을 아쉬워해 주었고, 젊은이의 앞날에 도움이 될 만한 격려를 해 주었다. 직장 선후배와 동료들이 필자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해 주어 아주 기분이 좋았다. 파송식을 끝으로 회사원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독립적인 1인기업으로서의 삶은 4년차에 접어들었다.

필자가 1인기업이기에 지난 3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칼럼을 쓸 것이다. 불과 얼마 전의 일들이기에 초기의 어려움과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이가 맛보는 생생한 떨림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독자 대상은 2030 젊은 직장인이나 취업준비생이다. 젊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1인기업 모델이 필요하다. 2010년을 전후하여 1인기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은 2000년을 전후하여 등장한 1인기업과는 몇 가지 면에서 다르다. 나는 이들을 각각 1세대와 2세대 1인기업으로 구분하여,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할 것이다. 2세대 1인기업은 1세대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과 새롭게 창조해야 할 것들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조직경력은 필수”라고 말하는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주장도 할 것이다. 또한 1인기업의 본질은 전문성이니, 어떻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다룰 것이다. 전문성은 세대를 초월한 1인기업의 성공요소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 다음 호부터 연재를 시작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프리랜서 강사되기 과정에서 배웠던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1인기업 세미나에서 배웠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겠다. 필자는 글을 읽는 당신이 원대한 비전을 품은 청춘이었으면 좋겠다. 마음 속에 구분형 혹은 공병호라는 이름을 품은 비전가이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칼럼들은 큰 꿈을 지닌 젊은 1인기업가들에게 하나의 디딤돌이 되면 좋겠다. 오늘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

[호랑이 프로젝트] 1인 기업가로 홀로서기

필살기를 갖춘 호랑이들의 마케팅 전략

| 이 건 호

호랑이는 그렇다. 본능적으로 '홀로살아'이다. 무리 짓지 않고 혼자 다니면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아주 멋진 존재이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깊은 산이나 정글 속에서는 아무리 호랑이라도, 혼자라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다. 산이나 정글은 당장 한 시간 앞에 어떤 적들이 들이 닥칠지, 어떤 자연재해가 들이 닥칠지 알 수 없다.

언제나 안개가 자욱하다. 안개 속에서 넘실거리는 불확실성의 냄새를 맡으면 호랑이는 본능적 두려움에 떨며 흰 이빨을 드러낸다.

그런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 속에 '혼자' 있다는 것은 또 어떤가. 혼자 있는 것이 분명 호랑이 유전자를 가진 존재들에게는 편한 것이기는 하다. 게다가 속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는 멋있어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전방, 후방, 측방 할 것 없이 온 사방을 스스로 알아서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면 혼자라는 것이 언제나 좋지 않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마음껏 혼자 있다가도 누군가 등을 긁어줄 동료가 필요하면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 호랑이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호랑이가 사는 깊은 산 속에 뿌리 깊게 깔려 있는 '안개와 고독'...

제 아무리 천하의 강자인 호랑이라 해도 이 '안개와 고독'은 물리치기 쉽지 않은 적수일 것이다.

필자도 약 4년 전 보다 자유롭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조직을 떠나왔다. 내 커리어뿐만 아니라 전체 인생에 있어 혁명과도 같은 진화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자유는 획득하였지만 대신 불확실성과 외로움이라는 대가를 지불했다. 1인 창조기업의 나날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그 불확실성에 오직 홀로 맞서야 하는 생활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과 외로움이라는 것에 적응하여 살고 있다. 비록 짙어졌다, 얇아졌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외로움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던 차에 작년 9월,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이하 변경연)에서 호랑이 해에 맞추어 '호랑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는 얘기를 들었다. 여기서 호랑이란 홀로 살아가는 '1인 창조기업가'를 의미한다. 구본형 선생의 말씀을 빌리자면, 첫째는 자유롭게 개별적 독특함을 추구해야 하며, 둘째는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력을 지니고, 셋째는 자유롭되 창조적 소수를 얻어 깊고 멀리 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힘을 갈고 닦는 존재가 **호랑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지 혼자 기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호랑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변경연은 1인 창조기업을 시작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호랑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탐구를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소위, '홀로살아'이기 때문에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안개와 고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강한 경지의 호랑이 - 이를 **Untouchable**이라 한다 - 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 내기로 했다. 지난 4년 동안 항상 이런 '안개와 고독'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던 나로서는 매우 흥미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었다. 만사 제쳐놓고 그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보통 1인 창조기업을 결심하고 세상에 나올 때 사람들은 자신만의 영역, 즉 필살기를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남은 것은 이제 운이 따라주는 것 뿐...

그러나 호랑이로서 삶을 살기 위해 올바른 방향과 영역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地**를 선택한 것뿐이다. 이제 이 넓은 '1인 창조기업'의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영토에서 활동하고 뿌리를 내릴 것인가 정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地위에 形을 쌓는 것이다**. 形은 어떤 地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고 수련하는 것은 공통적일 것이다. 배워야 할 것이고 또 손에 익혀야 할 것이다. 자신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텨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는 호랑이보다는 곰이 되어야 한다. 마늘만 **먹더라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을 버텨내야만** **때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라는 것은 한 평생에 한번만 오는 것은 아니다. 작은 **때**들은 形을 갈고 닦으며 쌓아가는 동안 여러 번 만나게 된다. 작은 **때**라 할지라도 **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그야말로 ‘문 밖에서 행운이 노크를 하고 있는데, 뒤뜰에서 행운의 네 앞 클로버를 찾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항상 귀를 쫓긋 세우고 **때**가 노크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때**를 만나면 ‘독수리가 지상의 먹이를 썰 때 처럼’ 전격적으로 채어가야 한다.

그렇게 작은 形과 **때**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인생에 勢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이 기운은 나 자신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나의 의지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거대한 선순환의 勢가 형성되면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로 진화할 수 있다. 이런 진화를 통해 홀로살이 1인 창조기업이 기어이 호랑이 중에서도 신령스러운 존재인 ‘Untouchable’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변경연의 호랑이 프로젝트 팀은 이런 가설을 가지고 올해 내내 아직 진화가 덜 된 호랑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향해 탐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칼럼은 그런 ‘호랑이 프로젝트’의 생생한 중간 산출물을 재료로 쓰려고 한다.

이 호랑이 칼럼이 추구하는 목표는 두 가지로서, 매우 분명하다. 21세기 경제의 주역이 될 수많은 1인 창조기업가(이하 호랑이)들에게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자신을

끊임 없이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마케팅 전략 개발 방법으로 사례 중심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그 첫째이고, 기질 상,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즉 필살기에만 몰두하다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기존의 호랑이와 새롭게 호랑이의 길로 들어 서려고 하는 후보자들에게 fact에 근거하여 도출된 살아 있는 마케팅 전략 tool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그래서 이 글은 호랑이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칼럼의 내용이 달라 질 것이다. 우선 **다음 달인 4월은 지금까지 전국의 호랑이들의 사례를 통해 프로젝트 팀이 도출한 호랑이들의 가설적 성공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호랑이로서 자신의 현 위치와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호랑이 self-assessment, evolution roadmap 등 개발된 방법론 등을 소개할 것이다. 5월부터는 호랑이 프로젝트의 실험case에 참여하는 volunteer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칼럼 집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참여자들의 호랑이로서 현 위치 진단 및 ER 결과 소개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6월에는 evolution roadmap 실행을 위한 마케팅 전략 개발 과정 및 결과 소개, 7월 이후부터는 실행 상의 에피소드와 시행착오 등을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칼럼을 꾸며갈 예정**이다.

이 칼럼을 통하여 필자와 같이 ‘안개와 고독’에 시달려온 1인 창조기업가들과 만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이 칼럼에서 다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살아 있는 날고기와 같은’ 생생한 지식을 얻어 갈 수 있게 된다면 그 보람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앞으로 긴 여정을 가다 보면 오늘 호기 있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날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경우여라도 최선을 다해 모든 호랑이와 호랑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 약속 드린다.

호랑이는...

홀로 살아가는 '1인 창조기업가'

- 1.자유롭게 개별적 독특함을 추구해야한다.
- 2.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력을 지녀야한다.
- 3.자유롭되 창조적 소수를 얻어 깊고 멀리 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4.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힘을 갈고 닦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인문학 놀이터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
유분방한 인문학 놀이공간

루린 이야기

너와 나 사이의 풍경

| 김도윤

1. 주제 Theme

“관계를 상실한 인간에게는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오직 영혼을 통해서만
완전성을 얻을 수 있는데, 영혼은 그 반대편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카를 융

우리는 과연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어쩌면 라이프니츠가 말했듯 ‘창이 없는 모나드(window-less monad)’인 우리에게 타자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서로를 알 길 없는 우리는 고독하게 현대를 살아간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한다. 언어와 몸짓 - 밀어와 애무와 같은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너라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곳에 바로 새로운 희망의 온기가 깃든다.

대부분의 사랑은 아름다운 오해에서 시작되어 그것이 자신만의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끝나고 만다. 우리는 과연 그 철학같은 허공을 건너뛸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그 길은 역설적이지만 너와 나 사이의 풍경,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 루치아노 데 크레센초의 노래처럼 “우리는 한쪽 날개만 가진 천사, 서로를 안을 때만 날 수 있다.”

2. 컨셉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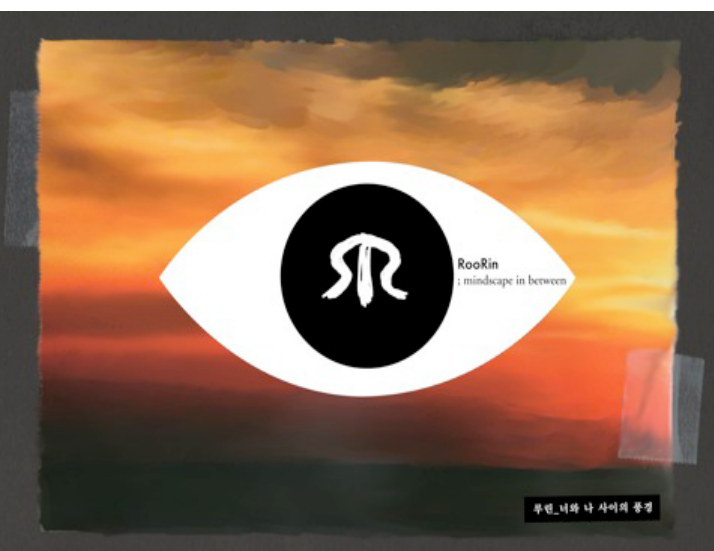
“Anime est Sol et Luna. - 영혼은 해와 달이다.”

우리를 사로잡는 ‘눈을 떴다 감는’ 순간의 마주침에 대한 이야기, 하루 동안의 짧은 사랑 이야기, 동서남북, 네 영혼의 사방(四方)에 대한 이야기.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날 때,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 영혼의 중심을 찾지 못하고 표피를 떠도는 사람들,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찢기듯 부유하는 도시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상징인 루와 린의 독백을 통해 담아내려 한다. 현대의 신화와 사랑의 철학을 픽션과 에세이, 이미지와 텍스트, 그래피티의 결합이란 실험적인 형식으로 탐구할 것이다.

눈을 떴다 감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24개의 이미지그래프(Image+Graf)와 12개의 철학적 에세이로 풀어내 본다.





Intro. 눈을뜨다-----

ActI. 아침----- ActII. 오후-----

ACTIII. 밤----- Outro. 눈을감다

3. 프롤로그 Prologue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헤르만 헤세

그 어디에도 가닿지 못하고 흔들렸다. 허공에 내리는 동시에 녹아내리는 봄눈처럼, 미처 던져보지도 못하고 놓쳐버린 돌멩이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쓰러지기만 했다. 이제 서툰의 문턱을 한, 두걸음 지나고 보니,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진정 소중한 것이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장자의 외물 편에서 헤세는 장자에게 말한다. “자네의 말은 쓸모가 없네.” 그러자 장자가 이야기했다. “쓸모없음을 알아야만 함께 쓸모있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이네. 땅은 정말로 넓고 큰 것이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사람이 쓸모를 느끼는 것은 단지 자신의 발이 닿고 있는 부분뿐이라네. 그렇다면 발이 닿는 부분만을 남겨두고 그 주변을 황천, 저 깊은곳까지 파서 없앤다면, 그래도 이 발이 닿고 있는 부분이 쓸모가 있겠는가?”

그렇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그 쓸모없는 청춘이었다. 하늘을 떠가며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구름처럼 가벼운 것들, 실낱같은 섣바람에 파르르 떨리는 나뭇잎과 같은 부질없는 욕망들, 그 보잘것 없는 청춘의 조각들과 진심을 전하지 못한 서툰 사랑의 파편들이 바로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다.

이제 부서진 유리조각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파편들에 생명을 부여하려 한다. 내 마음을 흔들었던 그 덧없는 것들에 이름 하나를 붙여보려 한다. 입 안에서 웅얼거리기만 하던 단어들로 서툴지만 자신의 노래를 불러 보려 한다. 눈 한번 떴다 감으면 사라지는 그 형체 없는 것들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담아, 보이지 않지만 한없이 소중한 것들에 대해 감히 말하려 한다.

예전엔 좀 더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삶의 정답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즐겁고 슬픈 춤을 추면서 걸어가는 것, 혹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면 진심을 전하던 그 떨림의 순간처럼 온 몸과 마음의 용기를 모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오직 그 뿐이었다. 산다는 것은 늘 그렇게 흔들리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이제 여기, 당신과 나 사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한 청춘의 독백들을 전한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하루동안의 짧고 서툰 사랑 이야기 하나를 띄워 보낸다.

“부디 네 영혼의 지축이 가리키는 그 길을 발견하길.
그리고 힘껏 그 길을 따라가길...”



인문학 놀이터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인문학 놀이 공간

성찰, 내면으로의 모험

내면 탐험으로의 초대

| 홍승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수선화의 전설’로 유명한 아름다운 미소년 나르키소스(Narcissus)가 나온다. 나르키소스는 자존심이 엄청 강해서 숲한 처녀들과 요정들의 구애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맑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단번에 반해버렸다. 자기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물에 비친 자신은 만질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법. 그는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안타까워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그가 죽은 자리에서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이 꽃이 바로 ‘나르키소스’, 즉 수선화이다.

파울로 코엘료는 <연금술사>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재해석한 나르키소스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이야기를 읽기면 이렇다.

나르키소스가 죽었을 때 숲의 요정들이 호숫가에 왔고, 그들은 호수가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왜 울고 있나요?”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어요.”

호수가 대답했다.

“하긴 그렇겠네요. 우리는 나르키소스의 아름다움에 반해 숲에서 그를 쫓아 다녔지만, 사실 그대야말로 그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나르키소스가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호수가 물었다.

“그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르키소스는 날마다 그대의 물결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잖아요!”

놀란 요정들이 반문했다.

호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저는 지금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지만, 그가 그토록 아름답다는건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가 제 물결 위로 얼굴을 구부릴 때마다 그의 눈 속 깊은 곳에 비친 나 자신의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아, 이젠 그럴 수 없잖아요.”

<연금술사>에 나오는 신비로운 연금술사는 이 이야기를 읽고 “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며 감탄한다. 코엘료의 소설에서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연금술사가 이 이야기에 감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가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거울이 필요하다.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내면을 비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호수가 나르키소스의 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본 것처럼 말이다. 신화에 따르면 나르키소스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외모에 사로잡혔다. 호수도 그랬을까? 나르키소스의 ‘눈 속 깊은 곳에 비친’ 것은 호수의 외면이었을까? 아마 그랬다면 연금술사가 감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납을 금으로 만드는 실제 연금술과 자아의 신화를 실현하는 ‘영혼의 연금술’ 모두를 터득한 비범한 인물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호수가 나르키소스의 눈을 통해 본 ‘자신의 아름다운 영상’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호수 자신의 내면, 아름답게 빛나는 내면의 정점이다. 호수는 나르키소스를 통해 자신의 진면목을 본 것이다. 호수처럼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처녀와 요정들이 나르키소스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에게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는 못했다.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나르키소스에게서 짝사랑의 슬픔과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느꼈을 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중팔구 착각이다.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건 ‘자기(self)’에 포함된 ‘자아(ego)’일 뿐이다. 그 중에서도 일부만 알고 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한다. 다른 이의 속만 모르는게 아니다. 내 속도 모른다. 나에 대해 모르니, 다른 사람의 내면은 더 모른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도 한다. 사실이다. 그만큼 내면은 복잡하고 역동적이다. 위대한 심리학자인 카를 구스타프 융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을 무엇과도 비교해볼 수 없다. 인간은 원숭이도, 암소도, 나무도 아니다. 나는 하나의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면은 미궁이다.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여행이 필요하다. 이 여행은 모험이다. 모험에는 위험이 따른다.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고, 심연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두려움도 설레기도 하다.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게 모험 아니던가.

위험한 모험을 굳이 떠나야만 하는 걸까? 난 그렇다고 믿는다. 융의 말처럼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관해 내 부로부터 해답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그것들은 결국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외적인 상황들은 내적 체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모험을 피해서는 안 된다. 내면탐험은 삶의 기술에 관한 게 아니라 ‘나’란 존재를 다룬다.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에게 내면탐험은 피할 수 없는 모험이다. 모험의 부름을 거부하면 익숙한 삶을 살겠지만 존재의 도약은 불가능하다. 존재의 도약은 다른 나가 아니라 본래 자기 자신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차마 들어가기 겁내던 바로 그 동굴이,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의 원천임이 밝혀진다.

- 죠셉 캠벨, <신화와 인생> 중에서

미궁 속 모험은 탐색적 성찰의 과정이다.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에게서 얻은 실타래로 미궁을 탈출할 수 있었듯이,

내면의 미궁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실타래’가 필요하다. 이 칼럼은 내면으로의 모험을 위한 실타래에 대한 것이다.

나는 앞으

로 1년 동안 내면탐험을 도와주는 12개의 이야기를 그대에게 소개할 생각이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희미하게 윤곽만 잡았을 뿐 나도 모른다. 내가 먼저 내면으로의 모험을 떠날 것이고, 거기서 건져 올린 이야기를 그대와 나눌 생각이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와 함께 성찰을 도와주는 방법도 하나씩 소개하고 싶다.

1년 동안 이 칼럼이 잘 진행된다면, 나의 내면탐험이 중간에 좌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2개의 이야기와 그와 비슷한 수의 방법론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 그대를 내면탐험으로 초대하고 싶다. 동시에 그 탐험에 필요한 유용한 무기를 그대 손에 쥐어주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이 칼럼의 목표다. 물론 모든 이야기와 방법론 모두가 그대에게 유용하지는 않을 거다. 그 중에서 그대 마음이 당기는 이야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법 몇 개를 추리면 된다. 그 정도면 내면 탐험가의 준비물로 충분하다.

나는 모순투성이인가?
잘됐군. 그렇게 모순으로 가득하다면
나는 드넓고 내 안은 넘친다는 애기지.
- 윌트 휘트먼, ‘내 자신의 노래’

내면은 미궁이다.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여행이 필요하다. 이 여행은 모험이다. 모험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두려움도 설레기도 하다.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게 모험 아니던가.

인문학 놀이터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인문학 놀이공간

시 읽어주는 여자

| 이 은 미

2009년 가을,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내용은 주인공 남자 ‘마이클’이 여자 주인공 ‘한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들의 사랑이야기입니다. “내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녀가 이야기 하는 내 나름의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어주는 방식을 통해 두 사람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책의 권수가 늘어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도 더 깊어집니다. 전 그들의 소통방식, 그들의 사랑의 방식이었던 ‘책 읽어주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 읽어주는 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발머리, 당차게 걷던 소녀, 저녁놀, 달맞이꽃, 신호대의 바람소리, 층계, 석포리바닷가 보인다고 까치발서서 보던 꼬맹이. 순교지, 산수리저수지, 해뜨기전의 적막함과 겨우내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청보리를 좋아하던 소녀. 시는 그때 내게 순간 들어왔습니다. 시는 지금 나를 그때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시’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꿈꾸는 아이였을 때로 만들어주는 것, 다시 그때의 나를 일깨워 내는 것, 다시 나를 살아있게 하고 다시 춤추게 하는 것을 ‘한나’가 아닌 ‘내면의 나’에게 읽어줍니다.

‘책 읽어주기’가 마이클과 한나가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소통의 방식이었던 것처럼 나로서 살아가기를 꿈꾸는 ‘마흔의 내’가 아직 포기를 몰랐던, 꿈으로 가득했던 ‘무의식의 나’를 일깨워 내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시인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상을 선물해주고 혁명은 우리가 한번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세상을 당연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군요.

함께 나누고픈 일상속의 시들을 이곳에 담으려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시 한편으로 마음이 즐거워지고, 시 한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시 한편으로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년, 소녀의 그대를, 꿈틀대던 무의식의 그대를 만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냐,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밤의 가지에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격렬한 불 속에서 불렀어,
또는 혼자 돌아오는데 말야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그건 건드리더군.

-파블루 네루다의 ‘시’ 전문-